

협회소식/업계동정

하절기 유제품 변질사고 예방 소비자 보호 위생관리 세미나

한국유가공협회(회장 金榮鎭)는 지난 5월25일 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유업체 영업담당 임직원, 대리점장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유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하절기를 앞두고 우유·유제품의 변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진수 보건복지부 식품관리과장(95 위생관리시책 및 감시방향), 박중수 충남대교수(하절기 우유및 유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수입개방과 소비자보호)이 주제발표를 했다.

야쿠르트, 종합연구 확장 이전 용인기흥에 50억 들여 신축

한국야쿠르트(대표 李銀鮮)는 국내 유가공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고 첨단발효유사업 발전을 위해 6월 16일 기흥종합연구소를 신축, 확장 이전했다.

총 50억원이 투입된 이 종합연구소는 경기도 용인군기흥읍에 대지 1천5백평, 연건평 1천평 규모로 세워졌다.

이건물의 지하1층에는 과일릿 플랜트 설비와 동물실험실 자가발전기, 지상1층은 도서실 세미나실 집건실, 지상 2~3층은 실험실등이 배치됐다.

주요설비로는 초고속원심분리기를 비롯 냉각원심분리기 혐기성배양기

광학현미경 동물세포배양기 초저온냉장고 등 첨단 시설들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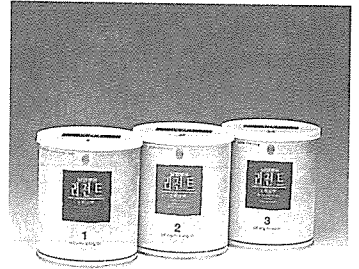
국내 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9년 안양에 대지4천평, 연건평6백40평규모로 설립된 한국야쿠르트유업의 연구소는 이번 기흥종합연구소로 확장이전을 계기로 체계적인 연구와 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구1~3팀과 연구기획과에 박사 4명, 석사 20명등 모두 41명이 근무하는 이연구소는 앞으로 발효유 등 건강장수 식품개발과 함께 유산균의 의학적 효능 연구분석과 산업용 종균, 기능성건강식품,유산균 향암제 등 의약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주소 : 경기용인군기흥읍고매리 418-12, 전화 : (0331)284-5902~5

남양,모유 면역성분 강화한 고급분유 ‘리젠티’개발시판
남양유업(대표 洪源植)은 최근 모

유의 면역성분을 강화하고 소화흡수성을 높인 고급 분유인 ‘남양분유 리젠티’를 개발,본격적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이신제품은 모유의 면역성분을 강화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높여주고 단백질을 저분자 상태로 만들어 소화흡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라고 남양유업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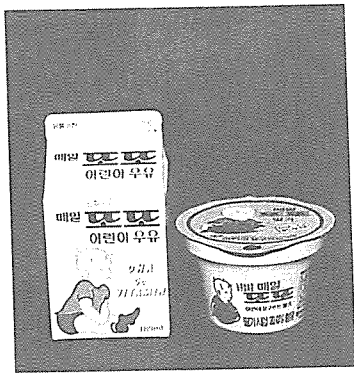
남양유업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기존의 남양분유와 ‘남양분유 로얄’, ‘남양분유 임페리얼’ 등을 포함해 분유 분야에서 4가지 제품을



갖추게 됐다.

4백g짜리 캔당 권장 소비자가격은 4천원이다.

매일, “어린이우유 또또”시판
떠먹는 요구르트도 두종 출시
매일유업(대표 朴熹柱)은 최근자
라나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각종 영
양성분이 강화된 ‘매일 어린이 우유
또또’와 ‘떠먹는 요구르트 또또’를
개발,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어린이 우유 또또’는 뇌세포 성
분인 **DHA(도코사헥사엔산)**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천연칼슘, 비타민 A,
D, E 등이 강화된 제품으로 현우유와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 세가지를
선보였다.

또 딸기와 바나나맛 등 두가지 종
류로 나오는 ‘떠먹는 요구르트 또또’
역시 **DHA**가 강화되고 인체에 유익
한 비피더스균과 달지 않은 올리고
당이 첨가돼 어린이 충치예방에 효
과가 높다고 매일유업은 설명했다.

서울, ‘저지방 리듬우유’ 시판
서울우유는 최근 저지방 저칼로리
에 생체리듬 활성화성분을 첨가한
리듬우유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생체리듬에 활력을 주는 타우린을
함유한 이제품은 칼로리가 46Kcal로
일반우유의 3분의2수준이다. 가격은
200ml팩제품이 340원.

**빙그레, 도농공장 시설 확장
1백60억 들여 내년2월 완공**

빙그레가 유가공및 빙과제품을 생
산하고있는 도농공장에 1백60여억원
을 투자, 생산라인을 확대한다.

빙그레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도농공장의 1공장인 유가공
생산공장(1만3천4백평)과 2공장인
빙과공장(5천8백70평)외에 연건평 4
천5백평에 지상5층 지하1층규모의
제3공장을 내년2월까지 추가건설 빙
과및 유제품생산라인을 늘리기로 했
다고 밝혔다.

**삼양, 고지방 기능성고급우유
“고원 바이칼우유”개발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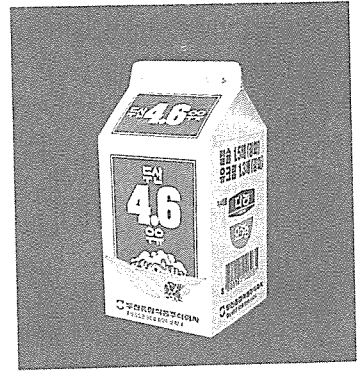
삼양식품(대표 安麟洙)은 최근 유
지방을 일반우유보다 1% 많은 4.3%
로 함유율을 높이고 대장활동을 촉
진시켜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비피더스
유산균과 비타민을 첨가한 기능성
고급우유인 ‘高原 바이칼우유’를 개
발시판에 들어갔다.

삼양식품은 또 이 제품은 1백g 중
칼슘이 2백mg, 철분은 0.5mg으로 일
반우유보다 각각 2배, 5배나 많은 것
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희망소비자가격은 2백30ml들이는
5백원, 9백30ml짜리는 1천5백60원이
다.

두산, 칼슘강화 고칼로리
‘두산 4.6우유’개발 시판
두산종합식품은 최근 **고영양유**크

림과 칼슘을 강화한 **高칼로리 프리
미엄 우유신제품 「두산 4.6우유」**를
개발 본격시판에 들어갔다.



두산 4.6우유는 일반 제품보다 **高
영양크림이 1.3배** 많아 진하고 고소
해 맛이 일등하며 칼슘도 1.5배 강화
돼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수험생
에게 효과적이란게 두산종합식품측
설명이다.

특히 이제품은 서해안 청정지역에
서 집유된 신선한 원유를 주원료로
만들어 맛이 깨끗하며 위생적이라고
말했다.

두산종합식품은 이제품의 포장은
카톤팩 방식을 채택, 재활용이 가능
토록 했다.

한편 이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1백 80ml 3백원, 4백35ml 6백 50원
이다.

종합소식

2백7개 식품 유통기한 자율화
식품기준규격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통조림 제품, 청량음
료,과자류 및 술제품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낮은 식품 2백7종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돼 제조업체가 임의대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식품위생행정 개선방안에 따라 5월3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기준 및 규격(식품공전)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품목별로 6개월에서 7년까지 설정된 2백7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전면 자율화, 업체가 국내 유통여건에 맞춰 임의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에 권장 유통기한이 설정된 3백46개 식품중 60%의 유통기한이 업체 자율에 맡겨진다.

올해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통조림, 식용유,면류, 茶類, 청량음료, 건강보조식품, 간장 된장 등 조미식품, 인삼제품, 술제품 등 21개 식품군에 걸쳐 있다.

복지부는 이번이 자율화되는 식품이 상온에서 부패 변질 우려가 극히 적고 위생상 안전성이 높고 위해도가 낮아 유통기한을 일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한 미간의 분쟁현안인 냉동·냉장 식육등 1백14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풀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우유·두부, 조제분유, 도시락류, 튀김식품 등 유통과정에서 쉽게 변질되는 25개 품목은 자율화 시기를 98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작년 7월에 공전을 개정하면서 식품 자가격격기준이 설정된 3천2백여 품목을 공전에 반영,

공전규격화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7천2백여종의 자가격준 및규격을 모두 공전규격으로 흡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기한의 자

율화조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불량식품회수제가 도입돼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사먹을 수 있는 여건이

식품품목별 유통기한 자율화 계획

구 분	총품목수	'95자율화 대상 품목	'98까지자율화 대상 품목	'98이후 검토 대상 품목
소분류	346	약 207 (60%)	약 114 (33%)	약 25 (7%)
대분류	152	약 110 (75%)	약 30 (20%)	약 10 (5%)

'95자율화대상품목(유제품 및 관련제품)

식품군	품목
아이스크림제품류 (3)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유가공품 (8)	버터유분말, 가당연유, 가당달지연유, 유크림분말제품, 암소보존분유, 실온보존분유, 유청분말제품, 유당

'98까지 자율화 대상품목(유제품 및 관련제품)

식품군	품목
아이스크림류 (2)	아이스크림믹스 살균제품, 아이스크림믹스멸균제품
유가공품 (33)	멸균우유류, 살균저지방우유류, 멸균저지방우유류, 살균유당분해, 멸균유당분해우유, 살균가공유류, 멸균가공유류, 살균산양유, 멸균산양유, 발효유, 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농후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냉동발효유류, 살균버터유, 멸균버터유, 살균농축우유, 멸균농축우유, 살균탈농축우유, 멸균탈지농축우유, 살균유크림류냉장품, 살균유크림류냉동품, 멸균유크림류, 냉장버터류, 냉동버터류,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가공치즈, 살균유청류, 멸균유청류

'98이후 검토 대상품목(유제품 및 관련제품)

식품군	품목
우유류 (1)	우유(살균제품)
특수영양식품 (3)	이유식, 조제분유, 조제우유

마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복지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파스퇴르에 시정령 미군납자격 관련 허위 광고

파스퇴르유업이 또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9일 후레쉬우유의 미군납 자격획득사실과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한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중단하고 범위반 사실을 기광고한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우스운 이야기 한마디」라는 광고에서 유가공협회로부터 S우유, M유업, H유업, D우유가 연명으로 미군당국에 우유를 납품하고 싶으니 자격심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것 처럼 표현하였으나 조사결과 주한미군계약처가 국내 유제품 제조사들에 주한미군에 공급할 유제품 시장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한국유가공협회가 미군당국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내용은 경쟁사들은 사전준비를 거쳐 미군납자격심사를 요청했으나 불합격한 반면, 自社は 우연한 계기로 자격심사에 관하여 알게돼 합격했으므로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할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후레쉬우유 미군납 자격획득」 제하의 광고에서 “미군납 자격을 따냄으로써 세계 3대정상급 고급우유 % 오른다.

농림수산부는 6월15일 국민학교 급식용 우유(2백ml 카톤팩 흰우유) 가격을 오는 7월1일자로 1백70원에서 1백80원으로 5.9%인상키로 하고 유가공업계에 이를 통보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공업체들이 현행 공급가격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학교급식용 우유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소한의 인상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일반 흰우유 소비량중 급식용 비중이 8%에 이르고 값싼 외국산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올 가을 원유가 남아돌것이 분명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은 92년 9월1백46원에서 1백50원, 93년 3월 1백60원, 94년 3월 1백70원으로 계속 인상돼 왔다.

한국유가공 품질보증회 발족 국산유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빠르면 내년초부터 국산 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와 우리 농산물 마크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를 비롯, 남양유업, 매일유업,빙그레, 해태유업 등32개 국내 유가공업체들은 유제품 개방 원년을 맞아 국산 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근 한국유가공품질보증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자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

회(회장 閔병찬 해태유업 품질관리 부장)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유가공품질보증회를 통해 업계 자율로 기존의 KS와는 별도로 국산 유제품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유가공연구회와 한국 원유품질개선연구회 등 학계의 협조를 얻어 産學공동으로 품질보증제도 실시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날로 범람하게 될 수입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협이 사용하는 ‘身土不二’와 같은 우리 농산물 마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가공품질보증회는 또 업계 자율로 ▲ 리콜제 도입 ▲ 명예감시원제 도입 ▲ 제품규격 통일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 미군납자격을 미군당국이 주둔지역의 병사들에게 공급할 우유제품에 대해 미군당국이 정한 위생상태, 미생물시험등의 조사항목으로 정한 군납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 유럽등 낙농선진국중에도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주둔한다 하더라도 군납조건이 맞지않아 미군에 후레쉬우유를 군납하지 않는 유명 우유제조회사가 많이 있으며 ▲ 미군당국이 우유의 품질수준을 검사하는 국제적 공인기관이 아님에도 미군납 자격획득 사실만으로 세계3대정상급 고급우유라고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제 내달부터 영세축산농 대상

농림수산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 부업축산농가에 대해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6월15일 영세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부가세 면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감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체 축산농가의 96%에 달하는 76만가구의 영세 부업축산농가는 연간6백5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5kg들이 배합사료 한 포대의 소매가격은 부가세가 감면되면 5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9%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부업축산농가는 소득세법상 소 30마리, 젖소20마리, 돼지2백마리, 닭 1만마리이하를 기르는 농가를 말한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이들 영세 축산농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비과세증명을 받아 축협에 제출한 뒤 배합사료 소요량에 대한 쿠폰을 받아 사료 구입시 사료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우유값 5.9% 인상
7월부터 2백ml개당 1백80원
학교급식용 우유값이 7월부터 5.9%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유가공업체들은 특히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체적 품질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유가공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구를 발족시키는 방안을 농림수산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유가공품질보증회 李滿宰 사무국장(서울우유 생산관리부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국산 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모임을 발족시켰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메이커들이 원유 생산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품질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공연구회, 춘계세미나 개최
한국유가공연구회(회장 고준수)는 지난 5월26일 춘천소재 강원대 임과대학 강당에서 제40회 춘계유가공세미나를 개최했다.

학계 업계등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량 강원대 교수의 “WTO이후의 세계낙농 시장 변화”를 비롯 ▲ UHT우유의 저장중 유리지방산 생성의 원인과 기작(최인옥 경북대학교수) ▲ 어린이 설사원인 Rotavirus의 새로운Vaccine 개발에 관한접근(유재현 건국대학교수), ▲ Bifidobacteria가 생산하는 다당류에 관한 연구(허철성 한국야쿠르트연구소 책임연구원)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유체대포축정 표준용액 개발
정확도 외제보다 높고 가격도 싸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는 최근 우유 체세포수 측정기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표준용액을 국내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의과학연구소 朴龍浩, 鄭錫贊 박사팀이 개발한 이 표준용액은 原乳로 만들었으며 화학물질을 이용한 외국 제품에 비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다 생산가격이 매우 싸고 유효기간도 수입품이 1~2주인데 비해 3개월이상 보관 사용할 수 있다. 체세포는 젖소의 유방조직에서 나오며 우유가 세균에 감염되면 체세

의 외화획득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돼지등 늘고 젖소는 감소 3월현재 가축 통계 조사결과

소, 돼지, 닭은 늘어나고 젖소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95년 3월 1일 기준 가축통계조사」에 따르면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2백37만 2천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 6천마리(6.1%) 늘어났다.

또 돼지는 5백85만3천마리로 12만 5천마리(2.2%), 닭은 7천8백4만2천마리로 4백2만4천마리(5.4%)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젖소는 55만마리로 1년전보다 3천마리, 작년 12월보다 2천마리가 각각 감소했는데 이는 우유 및 유제품의 개방이 확대되고 일손이 많이 가는 젖소의 사육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육기구는 한육우가 53만2천가구로 1년전보다 3만1천가구(5.5%), 돼지는 5만1천가구로 1만3천가구(2.0%), 젖소는 2만5천가구로 3천가구(10.7%) 각각 줄었으며 닭은 17만9천가구로 2천가구(1.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사육두수는 한

육우가 1년전의 4마리에서 4.5마리, 돼지는 89.5마리에서 1백14.8마리, 젖소는 19.8마리에서 22마리, 닭은 4백18마리에서 4백36마리로 각각 늘어났다.

「식품관리청」 내년신설 확정 당정, 7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 1월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가칭)을 독립부처로 신설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미식품의약품(FDA)과 같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민생개혁차원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金泳三大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약정국과 식품국 및 관련 연구소를 통합, 별도의 독립청으로 발족하게 된다.

黨政은 최근 고위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金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원포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1등급우유는 ml당 체세포수가 25만개이하여야 한다.

체세포수 측정 방법은 직접현미경법, 형광물질발현검사법, 레이저광선

측정법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측정 전에 기기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해 표준용액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세포수를 측정하는 표준용액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나마 유효기간이 극히 짧아 수입즉시 활용해야 하는 등 검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표준용액은 현재 실용화단계에 들어갔으며 정부의 재원으로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생산해 국내 우유검사장, 유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수의과학연구소는 가까운시일내에 이 용액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낙농전문회사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덴마크 등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해 연간 6백만달러 13부 5처 15청으로 돼있는 현행 중앙행정조직을 2원 13부 5처 16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大選공약인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을 독립청으로 신설키로 확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및 의약품 안전관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